

# 남원시, 문화관광 대표도시 선정

### 2024 K-브랜드 어워즈 K-Brand 부문 K-도시 문화관광 분야

남원시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4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K-Brand, K-도시 문화관광분야 대표 도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K-브랜드 어워즈는 TV조선이 한국 대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 기업, 기관 브랜드에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賞)이다. 남원시는 K-Brand, K-Contents 2개 부문 각 8개 분야 중 1차 서류심사, 2차 국민투표, 3차 심사위원단 평가 과정을 거쳐, K-Brand 부문 K-도시(지자

체) 문화관광분야 대표 도시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대표적인 볼 축제 춘향제가 지난해 93회를 맞이하면서 4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화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 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30만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축제의 연이은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남원의 유곡리·두리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리산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 환

경부 국가생태관광지 1호 지정은 남원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화로 이어져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높여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중 개최된 체육대회로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4개, 시장대회 23개, 장애인체육대회 4개 등 한 해 총 54개 대회를 개최하는 저력을 발휘한 남원시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동호인·관광객들까지 함께 즐기는 지역 문화·관광 상품으로 연계 발전시킨 바 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1,300여명의 유구한 문화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참언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K-명승의 대표주자 관광무원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합과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최근 김병중 화백의 작품 화홍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하는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한층 더 피어나도록 할 계획이며,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싶은 남원 관광 1천만 시대를 향한 남원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을 기반으로 선진 사례를 경험하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해 도전한 결과, 국내 최초 세계드론제전과 남원의 특색 있는 가을 축제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4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K-Brand, K-도시 문화관광분야 대표 도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순창 발효미생물진흥원, '순창 빨간쌀' 출시

### 콜레스테롤 감소 도움 '모나콜린K' 물질 생산... 본격 판매 돌입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진흥원(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이 지난해 순창군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창 빨간쌀'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순창 빨간쌀'은 붉은 약용 효모(Red yeast)라고도 불리는 홍국균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쌀을 발효할 때 혈행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모나콜린 K라는 물질을 생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빨간쌀은 풍부한 빨간천연발효색소를 가지고 있어 가공식품에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쌀밥, 김밥, 초밥, 제과제빵, 발효주(막걸리, 약주), 음료, 된장,

떡, 국수 등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흥원은 제품개발과 함께 순창쌀 5톤으로 순창빨간쌀을 발효 제조하였으며 본격 출시 전 상품 홍보를 위해 'AFTER 2023! 농림축산식품 과 학기술대전'에서 기술홍보를 실시하고 '순창빨간쌀 출시기념 판촉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순창빨간쌀의 본격적인 대량생산과 순창빨간쌀을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 가공식품 적용연구를 통해 순창빨간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1회에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빨간쌀 생산 전용 자동드럼제 국기를 구축할 예정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월간 5톤의 빨간쌀 생산은 물론 연간 60톤의 순창쌀 활용이 가능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엔치즈,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63억 매출

육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개장과 임실N치즈축제 대성공 등 관광효과에 힘입어 임실N치즈 전문유통조직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지난 2022년 육정호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개장한 임실N치즈하우스 육정호점에서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총 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임실엔치즈클러스터가 2013년 4월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의 일환으로 임실N치즈식품클러스터 육정호사업단'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골자로 24일 임실N치즈테마파크 지정환회에서 이사장인 심 민 군수와 관내 유가공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고, 향후 임실N치즈의 활성화와 판매시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한 해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은 지속가능한 치즈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교육·컨설팅 등 치즈 산업 역량강화 사업과 유가공업체 운영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유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분야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임실N치즈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와 홍보용품을 활용했고, 다수의 박람회와 판촉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한 유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장과 치즈카페 등 7개의 직영판매장을 운영해 임실N치즈 전문 유통조직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는 유가공업체와 연구기관, 행정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 등과 함께 임실N치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저지종 젖소를 도입, 임실N치즈업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지종 유원은 홀스타인 원유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높아 치즈의 맛이 깊고, 향이 풍부해 임실N치즈의 고품질화로 대한민국 치즈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 민 군수는 "사업단이 임실N치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저지종 젖소 도입으로 임실N치즈산업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임실N치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은행, 순창군에 선물꾸러미 100박스 전달

전북은행(부행장 전상익)이 24일 순창군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선물꾸러미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과 김기석 순창지점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선물꾸러미에는 라면, 햇반, 김, 치약, 칫솔 등 총 10종의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내 11개 읍면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로 배부될 예정이다.

전상익 부행장은 "직원들과 함께 준

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해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곤충사육 농가들과 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이며 미래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곤충산업을 통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곤충사육 농가들과 간담회를 지난 22일 남원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곤충분야 주요사업 설명회와 농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곤충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곤충사육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내 곤충사육 농가들은 안정적인 종충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막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판로가 없어 대다수 농가가 사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가가 합심하여 판로 확보와 곤충사육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홍보와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읍·면 경로당 방문 교육 진행

순창군이 관내 57개소 읍·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기혈관 숫자알기' 교육을 22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정수치를 알고 그 수치를 유지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혈관 숫자알기 경로당 교육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올바른 식습관 교육도 병행되어,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 심뇌혈관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